

2018년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및 주일 예배 자료집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 발간사

진리가 더욱 든든하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인한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심각성은 교회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단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경험하였고 성도들의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기독교는 부도덕한 종교로 오해되어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되고 이로 인해 복음의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안에 이단대책분과위원회를 두어 주님의 몸 된 감리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로 이단에 대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단 대책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교회마다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는 것 또한 예방의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학자와 목회자, 이단 연구가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예방에 힘쓴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능히 지켜낼 것입니다.

둘째로 이단에 속한 단체들을 알려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기성 유명 단체와 이름을 유사하게 짓거나 그 이름을 자주 바꾸어 혼란스럽게 만들어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와 같이 위장 문화센터, 위장 봉사단체, 위장 대학 동아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인터넷 지식정보를 경계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포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부모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녀와 초신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단 사상을 접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8년도 이단경계주간은 10월29일(월)부터 11월3일(토)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 핵심 교리를 조금이나마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고 정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1월4일(주일)은 이단 경계주일로서 감리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이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본 자료집에는 이단의 실체와 포교 방법, 결의된 이단과 예의 주시해야 할 단체, 대학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 소개 및 대처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개체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리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기를 기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요한이서 1:10).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단의 공격을 물리치고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단을 대적하여 물리치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건구 목사 (제32회 총회 이단대책분과 위원장)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첫째 날(2018.10.29. 월요일)

나를 누구라 하느냐(기독론)

- 찬송: 80장(천지에 있는 이름 중)
- 성경: 마태복음 16:13-20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대상,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말씀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정리하여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신 후, 또한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여기는지 물으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 또한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믿음과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대답은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언자라고 믿고 섬긴다는 고백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네가 복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참된 신앙고백에서 참된 축복이 나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 기도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으며 바른 고백으로 복된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권진호 교수 (목원대학교 신학과, 전문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둘째 날(2018.10.30. 화요일)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가(속죄론)

-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홀린 피로써)
- 성경: 골로새서 1:13-14

기독교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은혜에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으로 응답하지만 은혜 자체가 인간에게는 더 없는 신적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믿어지지만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확신이 부족한 신자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신앙고백, 즉 영접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죄사함의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려면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 믿음을 영접 기도라는 간단한 양식의 기도를 통해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 기도는 대략 이런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저로 하여금 죄악을 극복하고 날마다 성화되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고백함에 의해 죄사함 즉 칭의를 경험하지만 구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경험한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 신자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세 중에 가장 중요한 권세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 기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김수천 교수 (협성대학교 신학과, 전문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셋째 날(2018.10.31. 수요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구원론)

-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성경: 로마서 10:9-10

등산을 가면 산 정상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코스를 택하여 산행을 즐기고 오면 됩니다. 산행에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정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다릅니다. 구원의 길은 사람이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여러 개의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곧 길이다”(요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길로 가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베풀고 봉사생활에 힘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엡2:9-10).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면 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원받는 길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내 주로 시인한다면 그와 동시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게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므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은종 목사 (중부연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넷째 날(2018.11.1. 목요일)

천국은 어떤 곳인가(천국론)

- 찬송: 438장(내 영혼이 온총입어)
- 성경: 누가복음 17:21

천국(天國), 하늘나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의 연한(年限)이 다 하므로 가게 되는 천상천국(天上天國)이며, 둘째는 이 땅에서 알게 되는 지상천국(地上天國)입니다.(눅17:21)

먼저 천상의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논할 때에 그들의 주제는 과연 천국에서 ‘누가 큰 자 인가’라는 주제였지만,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르치셨습니다. 때로 낙원이라고도 소개되는 이곳의(눅23:43) 입국조건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하고(마18:3), 그곳에서 큰 자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하며(마18:4), 그곳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의(義)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마5:3,10). 또한 천국을 맞이하기 전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마4:17).

둘째 지상의 천국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지상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눅17:20~21).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거듭난 이들은 볼 수도 있는 천국(요3:3; 눅9:27; 막9:1), 여기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요3:5). 그래서 지상의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을 말합니다(마6:10).

이단은 천국을 지상과 연관 지어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현상 등으로 소개하거나 혹은 천상천국에 대해서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하여 금은보화(金銀寶貨), 심지어 향락에 가까운 것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지상에서의 경제적 환산가치를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놀고먹고 춤추는 곳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가 가게 되는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며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마22:30). 천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천국에서 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눅16:23)도 비유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의 슬픔과 눈물, 아픔이 더 이상 없는 곳이며(계21:3~4), 이 땅에서의 햇빛이 쓸데없는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계21:22~23).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옥가기 싫어서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히12:2) 계시므로 반드시 가야할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있을 곳까지 천국에 예비해놓으셨습니다(요14:1~3). 천국은 주님을 믿고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 기도

주님을 마음에 늘 모시며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그러한 삶이 곧 천국임을 알게 하소서.

김현식 목사(남부연회 이단대책 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다섯째 날(2018.11.2. 금요일)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인간론)

-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 성경: 사도행전 14:8-18

역사적으로 사람 그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바로 로마의 포악한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 박해사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 하여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력한 탄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는 오래 가지 못하고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숭배하고자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를 고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헤르메스 신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극구 말리며 자신들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15절).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숭배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단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주 이만희를 성령님 대신 보혜사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천지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교주 이만희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격화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롬3:23).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요3:16). 그 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육은 악하고 영만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이미 1세기 기독교 이단으로 정죄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신을 좇아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주는 생각은 악독하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육신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성령을 모신 전으로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고전6:19). 육신도 영만큼이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송근종 목사 (서울남연회 이단대책위원)

■ 이단경계주간 기도회 여섯째 날(2018.11.3. 토요일)

종말은 언제 오는가(종말론)

-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 성경: 마태복음 24:28-31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 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도 종말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6~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종말의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다미션교회와 같이 종말의 때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연약함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야기 하는 이들을 매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말을 이해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끝날 에 올 우주적인 종말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맞는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말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마지막 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 나아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욕심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천국에 보화와 상급을 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늘 마지막 때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을 준비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마지막 때일수록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황건구 목사 (총회 이단대책분과 위원장)

■ 11월 1주 이단경계주일 공동예배문

집례자 : 교역자

[하나님께로 모임]

- 전 주 반주자
 * 입례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도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4-6)

온 우주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 경배찬송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다함께
 * 말씀교독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앙고백 다함께
 * 삼위영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장로/권사 중에서
 주님의 기도..... 635장 (하늘에 계신) 다함께

[말씀과 결단]

성경봉독 권사/집사
 찬 양 찬양대
 설교자 :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
 회 중 :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시 19:14)
 설 교 설교자
 합심기도..... 집례자

1. 감리교회 교인이 영적으로 깨어 이단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2. 이단에서 개종한 이들과 이단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3.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감사와 응답]

봉헌찬송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 찬 송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다함께
* 파송의 말씀		다함께

집례자 : 십자가 군병 되어서 수많은 원수들의 유혹과 미혹에 맞서 싸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 되기를 바랍니다.

회 중 :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 축 도		목 사
후 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6-10

오늘은 감리교회가 지키는 이단경계주일입니다. 감리교회를 비롯한 정통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이단” 하면 특별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급성장한 이단 종파들의 현황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가 성장하는 배후에는 정통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특별한 은사와 계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어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도 이단 사이비 종파로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할 때, 이단경계주일을 정하여 감리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고 이단에 대한 경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단을 뜻하는 영어 단어 “헤레시”(heresy)는 희랍어 “하이레스시스”(hairesis)에서 온 말입니다. 본래의 뜻은 “선택”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였으나, 사도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사악한 당파”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거짓된 믿음에서 나온 파당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고전11:19; 갈5:20). 우리말의 이단(異端)은 한자로 된 단어인데,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단의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 동일한데 끝이, 결론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이단들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이단들 모두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비교적 초기 작품입니다. 신학적으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로마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과 소망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다른 복음, 즉 이단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성도의 정체성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 직분이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온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자신이 정체성과 기독교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갈1:4). 바울의 편지들을 관통하는 복음의 주제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단에 대한 정의와 경계도 이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정체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고백을 이단들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림을 불완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

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고백이 있으면 대부분의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가까운 목사님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분이 LA에 방문해서 친구와 함께 산타모니카 해변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해안가를 걷다가 물위로 세워진 데크를 걸어갔다 오는데, 마주 오던 노신사가 아는 척 하더라고요. “아무개 아니야” 하기에, 아니라 하니깐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실수했다”면서 한국 사람이라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 자기는 40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젊을 때 와서 수없이 고생하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는데,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직업도 얻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 교인이었는데 자기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선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듣다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이지요.” 하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고 헤어졌는데, 그 노인의 인상이 참으로 온화하고 신사적이어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여호와의 증인 책자를 나누어주는 사람들도 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2. 다른 복음은 없다

이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네 절에서 네 번이나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6절)는 말은 그래도 온순한 표현이었습니다.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심지어 천사라도 바울이 전한 복음,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최고의 부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다른 복음, 즉 이단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유대교의 잔재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던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인성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성도들의 신앙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많은 교인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악하다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 즉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주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을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부정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기에 바울 사도는 가장 강력한 어조로, 요즘 말로 하면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불완전한 것으로 축소하고 인간의 행위와 관점을 왜곡시킨 잘못된 가르침에 단호하게 맞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단들과 다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래도 삼위일체와 기독교에 치중하여 신학적인 열심을 내다가 잘못된 해석에 빠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이단들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

합니다. 교묘하게 짜여진 교리와 성경해석을 통하여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가르치고, 가까운 종말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격리된 삶을 강조합니다. 이단들의 미혹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가정이 풍비박산되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7년 가을과 겨울에 전라도 광주와 화순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그 해 10월, 광주에 사는 22살의 한 대학생은 부모의 권유로 신천지에서 탈퇴한 것이 신천지 교리를 배도한 것이라고 괴로워 하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그 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부모에게 자신의 유언장을 들고 신천지에 찾아가 말씀을 배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신천지에 빠진 딸을 설득하기 위하여 함께 펜션에 갔던 부모가 논쟁이 격해지면서 딸의 입을 막아 질식사 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뉴스를 읽으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가정적인 비극이었을 뿐 아니라 젊은 청년들을 이단에 빠뜨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면 건강한 신앙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감리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진두 목사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 이단 참고 자료 (김현식 목사, 남부연회 이단대책 위원)

첫째 날-이단의 예수 이해 비교(여호와의 증인)

찰스 테이즈 러셀(1852~1916)에 의해 창립된 ‘여호와의 증인’은 「왕국회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파수대, 깨어라’등의 안내서를 만들어 거리 및 방문 포교를 한다. 이들의 주요교리에 있어 특히 예수님의 신성과 육체 부활에 관하여 부인한다. 구원에 있어 예수가 아닌 자신들의 교리를 준수하므로 행위구원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1.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며 천사중 하나이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주장할 때 인용하는 성경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요14:28)
- 2)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요13:16)
- 3)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5:19)
- 4)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전11:3)
- 5)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마20:23)

하지만 이에 대한 반증은 다음과 같다.

- 1)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2:6)
- 2)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3)
- 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2.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로 본다.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육체부활에 대해 성경을 통해 가르친다.

- 1) 육체부활은 예언되었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겠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육신이 썩음을 당하시지 않고 부활하신 것이다(행 2:31)
- 2) 예수님의 자신이 또한 예언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요2:19~20)
- 3)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눅24:2~3)
- 4) 직접 살아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증거하셨다.(눅24:36~39)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 날-이단의 속죄론 비교(구원파)

“구원파는 ”깨달음에 의한 구원“을 앞세워 19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사이비
기독교 운동을 총칭하는 말이다. 현재 구원파는 크게 ”기독교 복음침례회“(유병언.권신찬), 대
한예수교침례회(이요한),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등 세 계열로 나뉜다. 정통교회에서 이 세
단체를 묶어 ”구원파“라 한다.

1.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

구원파의 구원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자신이 구원받았
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곧 구원받은 정확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골로새서 1:6
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
면, 즉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즉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 신자들에게 “당신은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접근한다. 또한 어
느 집회에서 몇 명이 구원을 받았거나 누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이 곧 구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누가
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했다(눅24:47). 또 성경에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수십 번 기록
되어 있는데, 구원파는 왜 이런 구절들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구원파의 구원관은 “한 번 구
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구호에 갇혀 있으며,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괘념치 말고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는 위험한 사상으로까지 나아간다. 구원
파의 주장처럼 본인이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아
무 상관이 없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는 죄가 되지 않으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는
없고 자백만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육신으로 어떻게 생활하든 관계없다고 주장한 것은 구원파의 이단 사
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낸다.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퍼져 있던 도덕률폐기론과 성화무용론으로 이어져 심각한 범죄 행위
를 초래한다.

2. ‘도덕률 폐기론’과 ‘성경적 회개’

실례로 왜곡된 구원론을 앞세운 유병언 씨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행, 도청, 폭력,
사기, 정치권 로비, 협박 등을 불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오대양 사건 당시 반대
파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김도현 등 집단 자수범들은 살인은 했어도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
문에 천국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구원파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업의
비윤리적 운영과 관련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거지에서 왜곡된

구원관의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정통 기독교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싸우는 군사로 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치열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원파 주장의 본질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죄와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장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미 사함을 받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다. 신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도덕률폐기론”이라고 부른다. 박옥수 씨는 확신을 가지고 도덕률 폐기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수없이 강조한다. 요한계시록 2-3장에서 성령은 일곱 교회를 향하여 거듭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그 교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즉 성령은 처음 믿을 때의 회개와는 구별되는 생활 속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1:15)는 것이었다.

셋째날-이단의 구원론 비교(신천지)

1984년 3월 14일 교주 이만희에 의해 시작된 ‘신천지’는 「비유론」이란 교리서를 사용하며 그들만의 구원교리를 가리치고 있다. 이 비유론에는 ‘배도-멸망-구원’이라는 전형적인 3단 논법을 사용하여 성경전체를 이와 은 도식 안에서 풀이하고 있으며 교주에게는 예수의 영이 임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의 주장과 반증을 함께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천지의 주장 >

1. 재림주가 오기 전에 멸망자가 먼저 와야 한다.
2. 교회들은 2000년 동안 배도자와 멸망자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했다.
3. 첫 장막은 배도장막(유재열), 장로교단은 멸망자(오평호)라고 한다.
4. 그래서 둘째 장막 신천지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이만희를 통해 왔다.
5. 계시록 7쫓대 장막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으로 배도장막을 말한다.
6. 계2~3장은 배도장막을 설명한 것이다.
7. 계4장부터 둘째 장막(신천지)이 구원 장막으로 출현한 것이다.

< 반증 >

1.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은 모세를 통하여 세운 것이다.(출25:8~9, 출33:7)
2. 성막은 솔로몬시대 성전으로 이어져서 성전이라고 말한다.
3. 성막은 하늘의 식양대로 지은 것으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요2:19)
4.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며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 성전이라고 부른다.
5.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고 있다.
6. 살후2:2~3절이 첫 장막이 배도하고 둘째 장막이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 1) 예수님의 몸의 반은 배도하였고 반은 구원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 2) 예수님 혼자 배도자와 구원자가 된다는 말인가?

- 3) 오펜호가 언제 예수님의 몸을 멸망시켰는가?
- 4) 신천지의 주장은 예수님을 받은 배도자로 만드는 사악한 사탄의 교리일 뿐이다.
7. 계1장의 7촛대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 1)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 7촛대가 배도할 수 없다.
 - 2)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지 7목자라고 하지 않았다.
 - 3) 그러므로 7교회가 배도해야지 7목자가 배도한 것이 아니다.
 - 4) 계2~3장은 7사자가 배도한 것이 아니라 7교회 중에 타락한 성도들이 몇 있었다는 것이다.
 - 5) 7촛대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몸 안에서 배도자가 나올 수 없다.
 - 6) 계2~3장은 유재열의 장막성전과 무관하다. 목자가 배도했기 때문이다.
 - 7) 이만희가 지성소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주인이 유재열과 이만희란 말인가?

넷째 날-이단의 지상천국론 비교(몰몬교)

‘몰몬교’는 1823년 조지프 스미스(Joseph Smith, 1805-1844)에 의해 뉴욕에서 창립되었다. 일종의 자칭 예언자인 이 사람은 1827년 인디언의 고분에서 황금 판에 상형문자로 적힌 고대의 성구 [몰몬경(The Book of Mormon)]을 발견하며 이것이 ‘모로니’라는 천사에게서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번역하던 중 그것이 4세기경 아메리카의 예언자이자 역사가였던 ‘몰몬’이 쓴 것으로 예수의 부활 이후 북아메리카를 방문한 두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1. 몰몬교는 창교자 ‘조셉 스미스’가 받았다는 환상과 계시를 성경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2. 또한 몰몬교는 사도시대 이후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셉 스미스가 회복시켰으며, 자신들만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시대 이후 잃어버린바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새로운 복음의 진리와 의식을 다시 세워야 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계시자로 선택된 선지자가 바로 자신들의 교주 조셉 스미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숨긴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은 사람. 그는 계시자이며 선지자이다. 선견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안다. …조셉 스미스는 마지막 날의 위대한 선견자이다”(<경전 안내서>, p.133, ‘선견자 또한 선지자’에 대한 설명 중).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국 버몬트 주에서 태어났으며 1805년에서 1844년까지 살았다”(<경전 안내서>, p.153, ‘조셉 스미스 2세’에 대한 설명 중).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19세기에 지상에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였다”(<경전 안내서>, p.100, ‘복음’에 대한 설명 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지상에서의 성역을 베푼 후 일어났던 배도로 인해 지상에서 잃어버린바 되었다. 이 배도로 인해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시현, 천사들의 성

역, 그리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였다. 회복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시작되었으며....”(<경전 안내서>, pp.301~302, ‘복음의 회복’에 대한 설명 중). 이로 인해 몰몬교는 자신들이 메시아의 재림을 위해 마지막으로 지상에 세워진 유일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인 <몰몬경>에 의해 세워진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몰몬교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 교회’라는 그들의 공식이름조차 하나님이 다른 교회와 구분하기 위해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몰몬교는 지금은 ‘때가 찬 경륜시대’라며 각종 의식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몰몬교는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 조셉 스미스 등의 시대가 각기 다른 ‘경륜시대’라고 말한다. 매 경륜시대마다 새로운 복음이 주어졌지만 배도의 기간을 거치고 다시금 새로운 복음이 계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몰몬교는 지금이 조셉 스미스에 의한 ‘때가 찬 경륜시대’라며 과거의 구원계획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4. 몰몬교는 자신들이 사자(死者)들을 구원시킨다며, 가족관계는 천국에서도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몰몬교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침례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라 할 지라도 살아있는 친척들이 대신해 침례를 받아주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다만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히 9:27). 또한 성경은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도 다만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한다(마 22:30).

다섯째날-이단 분별법

대개 이단으로 규정되는 주된 요인이 바로 ‘구원교리’에 관한 부분이다. 정통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구원교리)는 로마서 3장 24절을 근거로 한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가 된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른 말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확실한 길이 된다. 따라서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만한 것이 없으며 또한 성경에 나타난 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 감리교회는 기독교의 근본교리인 이‘이신칭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이단의 경우 ‘이신칭의’교리를 절대적으로 부정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는 데에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믿고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른 바 ‘조건적 구원’, ‘행위구원’이다. 여기에는 특정한 인물(人物), 특정한 요일(曜日), 특정한 절기(節氣), 특정한 수(數), 특정한 단체(團體) 등이 있다.

1. 특정한 인물(人物)-교주(敎主)

예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다는 이른 바 재림주로서 자신을 부각시키거나 혹은 자신의 말이 곧 예수의 말로서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른바‘직통계시’로 묘사된다.

2. 특정한 요일(曜日)-안식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행위를 지켜야 구원이 된다는 가르침은 이단의 전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안식교의 경우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한 요일(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암암리에 구원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3. 특정한 절기(節氣)

안상홍 증인회의 경우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통교회에서는 기념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가르침이 된다. 이것이 특정한 날을 지키는 내용이다.

4. 특정한 수(數)

144,000의 제한 수는 신천지의 구원교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고 있다. 이 숫자가 완성되면 순교한 영들이 신천지의 그 수(數)에 임하여 하나가 되어 육체로 영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5. 특정한 단체(團體)

이것은 자신들이 속한 단체 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자신들이 속한 곳,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만을 따라올 때 비로소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이 외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한다.

※ 이단의 특징은 ①성경의 권위를 부정, ②교주의 신격화, ③이신칭의 교리의 부정, ④특정 단체의 구원 제한성, ⑤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부정, ⑥시한부 종말론, ⑦기성교회의 부정, ⑧신비주의 맹신 등을 나타낸다.

여섯째날-이단의 종류와 특징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단의 분파는 약 200여개 이상이며 이들의 구분은 발생지에 따라 국내자생(國內自生) 이단과 해외유입(海外流入) 이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정통기독교의 구원교리에 반(反)하여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선교를 방해, 또는 국가와 사회, 가정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 12개 단체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자생 이단

1) 구원파(기복,예침,기선) -박옥수 목사 중심 성경세미나, 마인드강연 전도집회, ‘IYF’라는

단체 통한 월드캠프, 영어말하기대회 주최, 굿뉴스코해외봉사활동, 문화체험박람회 등.

2)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학술취업관련‘도움닫기’,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 유도(QT,신학원,말씀센터 수강) 주4회, 6~7개월 과정, 비유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실상

3) 기독교복음선교회(JMS=정명석)-중고생 대상 자원봉사활동, 문화강좌프로그램 참여, 대학생은원동아리,째즈,스포츠,모델학원,봉사 동아리 등 문화를 이용한 포교전략, 핵심교리30개론 가르침.

4)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류광수 다락방)-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다락방운동은 ‘워치만 리’와 그의 동역자의비장교회 이론을 활용. 이는 보편성을 상실하여 다락방만이 유일한 참교회라고 주장하며 기존교회의 조직, 제도, 사업 등을 무시함.

5)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안상홍 증인회)-전단지배포(어머니 하나님, 안식일, 성탄절, 유월절에 대한 내용) 가정방문, 설문지조사, 전도 편지 등

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국제합동결혼식,피스컵축구대회, 모금활동, CARP(원리연구회), 문화연구회,어학동아리 등

7) 사랑하는 교회(구 큰믿음교회, 변승우)-‘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정통교리를 부정. 성경에 대한 정통적 해석 방식을 부정.

8) 만민중앙교회(이재록)-계시록, 종말론, 내세관이 문제시, 이재록의 신격화, 기성교회의 부정

2. 해외 유입 이단

1)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영혼소멸, 악인소멸을 주장, 지옥은 없다고 주장, 창교자(엘렌 G. 화이트)를 선지자로 여김. 채식교리, 주일성수를 짐승의 표로 간주.

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몰몬교)-젊은 남성 2인으로 활동, 국내 주둔 선교사로 소개하며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접근하여 무료로 영어교습을 시켜준다고 접근.

3) 여호와와 증인(여증인)-2명씩 짝을 이루어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길거리 포교를 통해 ‘파수대’, ‘깨어라’같은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성경을 잘 모르는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한다. 기성교회에 대해 ‘구원이 없다’고 하며 ‘아마겟돈 전쟁’과 ‘말세심판’등 위기의식을 조성한다.

4)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 혹은 동방번개파)-기성교회에 침투, 목회자나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들을 파악함. 교회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사람을 포교할 경우 중국 돈 2만 위안을 포상으로 제공하고 공로에 따라 직급을 높여 주기도 함.

한반도에 발생한 종말론/재림구세주론 및 주요 이단 계보도

기타 독립적 사이비 이단 교파

이장림 (다미선교회)

유병언

(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

(기독교)소식선교회

이요한

(생명말씀선교회)

박순자

(오대암)

이유성

(여호와의세월대단)

안상홍

(하나님의교회)

장길자

(하나님의교회)

이순화

(1917년 정도교 [正道敎])

남방여왕

(성주교 세주파)

한에녹

(종말론(영원한복음))

김성도

(원산예수교회)

유명화

(원산예수교회)

백남주

(원산신학선)

황국주

(세예루실업순례단)

김백문

(이스라엘수도원)

정득은

(삼각산기도원)

박태영

(여호와의부인)

박태선

(전도관)

문선명

(통일교)

조희성

(영성교)

김종규

(호경기도원)

이영수

(예덴교회)

유재열

(광막성전)

백만봉

(솔로몬재창조교회)

김종일

(실로몬대중영교회)

구인회

(천국복음전도회)

정창래

(성남장막성전)

심재권

(무지개장막성전)

홍중효

(중거장막성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정명석

(JMS)

진진화

(생명교회)

최충일

(재림예수교회)

박인수

(한국예수교한국복음전도회)

출처: CBS